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도란
도란
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핫이슈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특별기획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정착기

숫자로 말해요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출입국 사람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미얀마에서 온
친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의자

다리가 아프고 지칠 때면 주변의 사물이 의자로 보입니다.
언덕을 오르다가 발견한 바위, 오래도록 걷다가 우연히 본 낮은 울타리,
조금 전까지도 힘겹게 올랐던 계단조차도 다리가 아프면 꽤 그럴듯한 의자로 보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는 '사람'이 의자가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죽마고우는 언제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의자,
늘 느긋한 중학교 동창은 쓸데없는 푸념을 받아주는 의자,
항상 유쾌한 직장 동료는 매번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좋은 의자입니다.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줄 때
세상은 더 행복해집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서워진 칼바람에 옷깃을 한껏 여며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가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1년을 달려오신 공존 독자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따뜻한 사람들과 사랑을 듬뿍 나누는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공동가치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국경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을 구축하였고, 관계기관과 정보연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테러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외국인 명의 대포폰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와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무료검사, 백신접종 안내 등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였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남은 2021년도에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공감하고 공존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설렘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Dear
readers,

The season carrying colder winds has arrived. The first snow reminds us that the time has arrived for us to say farewell to this year. I hope you have achieved your New Year's resolutions by now. You now deserve to close the year strong with achievement and enjoy your holidays with your loved ones.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worked ceaselessly, throughout this year, to secure a country, where all members of our society harmonise with shared values that are cherished by Korean nationals. This year has seen a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K-ETA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system, which now serves as a foundation to filter and block high-risk individuals and those contracted a contagious disease. The K-ETA system also allowed us to sync information with relevant agencies to be prepared for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nd imported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It also fundamentally blocked the possibility of burner phones pre-owned by foreigners being abused. We also engaged in activities to safeguard our communities and foreigners from Covid. Leaflets were made in multiple languages to encourage receiving free testing and promote vaccination programmes. We also did not spare effort to introduce measures to attract more seasonal workers, which is a source of alleviating labour shortages experienced by rural communities.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strive to promote immigration policies that earn support from both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alike for the remainder of 2021.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in the upcoming New Year to advance our society of coexistence and harmony by listening to the voices of our nationals and foreigners, which serve as indispensable tools in achieving this goal.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for your support and kind interest towards our organization throughout the year and sincerely wish every single day of the upcoming year 2022 will be filled with joy and excitement.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Lee, Jae-yoo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1 vol. 58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에이치썸(02-2269-0309)

06 오늘도 행복해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08 핫이슈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12 특별기획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정착기

16 한국의 [M:E]

‘도란도란’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 미얀마에서 온 찬찬과의 만남



20 지구야 놀자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을 위한 챌린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22 숫자로 말해요

함께하는 대한민국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23 그곳이 알고 싶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민정책 &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이민정책연구원

24 출입국 사람들

혁신적 서비스와 철통 경계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지킨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28 정책 뉴스

법무부, 이민정책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29 공존 에티켓

외국에서 피해야 할 손동작

30 칭찬합시다

곽현 계장
차순희 계장

32 KIS NEWS

34 EVENT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센터장 인요한 박사는 우리나라 1호 특별공로 특별귀화자이다. 인요한 박사는 1993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했고, 29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결핵퇴치사업을 전개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와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12년 특별공로 특별귀화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특별공로 특별귀화제도는 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과 본래의 국적 모두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 박사는 구한말부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힘쓴 미국 기독교 선교사 집안의 후손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3.1운동 당시 한국의 실상을 미국에 알렸고, 인 박사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이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말한다. “저는 대한민국에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배려로 연세대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했고, 그 인연으로 30년 넘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뒤에는 늘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닙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몇 년 후 정년퇴임을 하는 그에게는 목표가 있다. 바로 ‘의료의 한류’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가히 세계적인입니다. 3년 정도 후면 정년퇴임하는데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세계에 알려 해외환자도 많이 유치하고 의료의 한류붐이 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의 한류붐이
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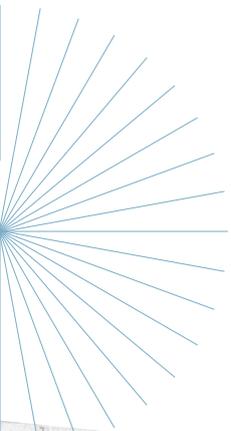


인요한 박사
(2012년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

Severance
the First and t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가 국가
간 경쟁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유학생 비자부터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까지
다양한 우수인재 유치 정책들을
시행하고 외국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에서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는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한 ‘필수 전략’

대한민국은 UN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1년 9월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위였던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고수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3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이 국가 혁신을 이뤄내는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당당히 겨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가 필수다. 2021년 9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석·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등 ‘잠재적’ 우수인재는 3만 7,665명에 달한다. 교수, 연구, 기술지도와 같은 전문인력도 6,17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이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국내 산업체는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구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유학생 비자, 전문인력 비자, 점수제 전문인력(거주 비자), 영주권 그리고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학생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육받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2016년에는 정부초청 장학생(GKS) 등으로 선발된 유학생을 위한 체류 자격도 신설해 대한민국으로의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인력 비자 중 하나인 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이며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경력자,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소지자 등 특별요건을 뒀 외국 우수인재 유치에 촉진하고 있다. 점수제 전문인력 비자는 구직, 창업 등이 자유로운 비자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체류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11년에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같은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수인재의 경우에는 복수국적 유치가 가능한 혜택을 제공한다. 2011년 시행 이래 2021년 9월까지 220명의 외국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카이스트에서 영주·국적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월 28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이스트에는 2021년 9월 기준 유학생, 연구원, 교원 등 총 1,069명의 외국인이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스캇 놀즈 국제협력부처장, 니콜라이 프베코브 연구교수(러시아), 마린 미카엘 박사후연구원(프랑스), 라쉬드 박사과정 학생(인도), 장징슈 석사과정 학생(중국) 등 카이스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웃음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우수인재의 국내 체류·국적 취득 자격

유학생 비자(D-2)

신청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특정활동 비자(E-7)

신청대상 :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신청 대상

1.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2.** 교수, 연구원 등 학술 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3.** 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 우수 능력자 **4.** 올림픽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 우수 능력자 **5.**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6.**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7.**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8.**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9.**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 분야의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10.** UN, WHO, OECD 등 국제기구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에서 연구와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교수를 만나게 되어 뜻깊다”면서 “우수 외국 인재를 확보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반갑게 맞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우수 외국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며 “영주권과 복수국적 취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카이스트 또는 대덕연구단지 내 국적체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출장소 개설을 희망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주 1회 정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MIT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20년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로 선정된 니콜라이 썬베코프 연구교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자 갱신 같은 절차가 간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 외국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위한 영주·국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카이스트에 이동출입국 상담부스를 설치해 외국인 등록, 체류 연장 같은 상담을 제공하고,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에 대한 설명과 상담도 실시했다.

카이스트 유학생 인터뷰



ALI SYED SHERAZ
(기계공학 박사과정·파키스탄)

“카이스트 내 200명 정도 되는 파키스탄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내 파키스탄 유학생이나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출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HRYSAN ANGELA PIARSO
(신소재공학과 학생·인도네시아)

“한국은 안전하고, 생활하기 매우 편리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사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면 좋겠습니다.”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 비자(F-2)

신청대상 : 전문직·준전문직 등 E-1~E-7, D-5~D-9, 상장법인 종사자, 유학(D-2) 또는 구직(D-10) 중 3년 이상 합법체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비자 신청 요건 충족하는 사람 중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5년

영주권(F-5)

신청대상 : 첨단 분야 박사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중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이고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점수제 전문인력 비자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대상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적회복자 중 특별귀화 대상자
신청 및 절차 : 신청 및 접수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면접심사 → 귀화·국적회복 허가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복수국적 인정)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정착기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순조롭게 한국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들도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여러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 진천을 떠나 현재 전남 여수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내년 2월이면 사회적응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한국살이를 시작한다.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 땅 밟은 그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정국 혼란으로 많은 아프간인이 안전한 곳을 찾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우리나라도 여러 국가들과 함께 탈출을 희망하는 아프간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조력자 이송작전(작전명 ‘미라클’)을 통해 수년간 아프간 현지 우리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등에서 우리를 도운 아프간 현지 협력자와 그의 가족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국제 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어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의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아프간인들은 현지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입국 당시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을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시행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하는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진천에서 시작된 본격 ‘한국살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은 후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첫 한국생활을 시작했다. 391명의 특별기여자는 정부 ‘생활시설운영팀’의 지원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갔다. 임시생활시설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의사(2명), 간호사(3명),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총 10명이 24시간 상주하며 이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했다. 특별기여자들은 인재개발원 내에서 야외활동을 즐기거나 산책을 하며 그간의 긴장과 불안을 씻어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차를 타거나 축구, 태권도 등 체육활동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특별기여자들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프레스데이’를 통해 한국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특별기여자는 “많은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해 봤지만 이렇게 사랑을 준 나라가 없었다. 아프간에서 너무 불안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으며 또 다른 특별기여자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게 해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이들과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며 한국에서의 삶을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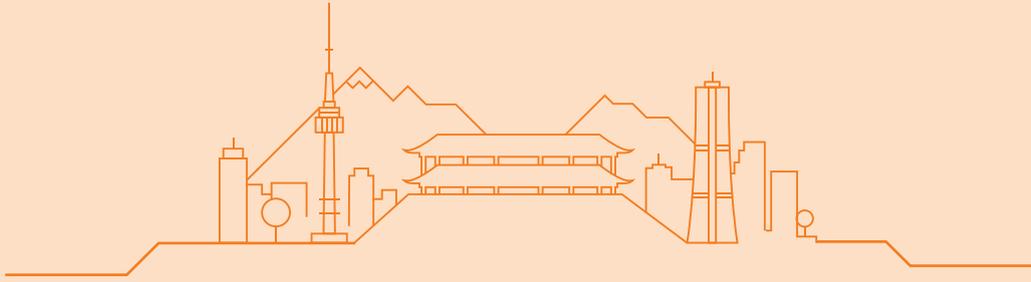


사회적응과 국내 정착 지원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초기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들에게 기초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을 운영하여 이들이 하루빨리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부는 학령기 아동에게 기초한국어과정과 심리치료, 특별활동(예술 등) 등을 지원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심화 교육, 가족 단위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미디어 제작 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등을 운영해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연령별, 가족단위별 미디어 교육·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많은 이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이 제정·시행되었고 이에 정부합동지원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합동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한국 사회 이해 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특별기여자들의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의료 등 국내정착 지원으로, 이로써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사업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온정의 손길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려는 온정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극동방송, 대한불교조계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특별기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 의사를 전해왔다. 기부 품목도 기부금부터 생활·위생용품, 의류, 담요, 음식류 등의 생필품과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장난감, 도서, 문구류까지 다양했다.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기부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부품목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기여자들은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한국생활에 나서고 있다. 특별기여자들은 내년 2월까지 이곳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다.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해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는 이들은 4개월간의 여수 생활을 마치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희망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 곧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특별기여자들. 성공적인 적응과 정착을 통해 이들이 한국에서 매일 행복한 꿈을 키워 나가길 바라본다.



Afghan special contributors embrace Korea as their adopted home

Afghan special contributors are adapting to their new home since their arrival in August. Multiple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re supporting their settlement with a wide array of policies and programmes. They have now relocated to Yeosu, Jeollanamdo Province from Jincheon,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y will complete social assimilation education and start a new life in Korea from February next year.

Operation “Miracle” served as a bridge to Korea

Countless Afghans fled their country after it came under the hands of the Taliban in search for a safe environment. Korea was one of few countries that actively led an operation to support Afghans wishing to leave. This resulted in the evacuation of Afghan collaborators and their family members (a.k.a. “Operation Miracle”), who worked for Korean organisations, including the Korean embassy, KOICA and Bagram Korean Hospital. Park, Beom-gye, the Minister of Justice, mentioned, “In order to fulfill our responsibility in par with other advanced nations, the Ministry decided to allow special entry of our Afghan friends for their contribution to our government’s activities.” This was the prime reason they were labelled as “special contributors”, instead of refugees.

The Ministry of Justice did not spare efforts even for Afghan nationals already residing in the country by taking humanitarian actions. They are specially allowed to stay in Korea until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stabilises without fear of their visa expiring soon.

Special contributors' new life started in Jincheon

Afghan special contributors began their new lives in Korea at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in Jincheon, Chungcheongbuk-do Province, a temporary living facility, after undergoing PCR tests shortly after entering the country as part of COVID-19 safety measures. With the support and care provided by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391 Afghan special contributors quickly adapted to life in Korea. In order to ensure their good health, a total of 10 medical professionals, including doctors and nurses from the Correctional Service and the military stayed in the facility around the clock.

Afghan special contributors enjoyed outdoor activities and hiked around the facility premise to relieve tension and anxiety. Children spent time riding toy cars or enjoying sports activities such as soccer and taekwondo.

Afghan special contributors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South Korea through "Press Day Event," a window of communication with the Korean people. A special



contributor stated, "I have worked with people from many countries, but no country has given me this much love. I was so anxious back in Afghanistan, but now I am grateful to be able to stay safe here." Another special contributor, said, "I am grateful to the Korean people for embracing me to stay with my family. I wish to continue my live here with my children."

Government Joint Support Group for Afghan Special Contributors was launched to provide support for settlement and social adapt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ther ministries offered various social settlement programs to help Afghan special contributors quickly assimilate into the Korean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provided essential health checkups and offered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allowing them to adapt to Korean life in a timely manner.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vided school-age children with introductory language courses, psychotherapy, and special classes activities, including art classe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pports online language education, Taekwondo training, and sports activities in family groups. In additio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ffered special contributors to have access to "Mobile Media Station" – a bus equipped with media production equipment – to provide tailored media education and experience by age group and family type.

Going further, a Prime Minister's Directive was enacted and implemented on November 1st to establish "Government Joint Support Group for Afghan Special

Contributors", with earning wide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Government Joint Support Group for Afghan Special Contributors will provide social adaptation programs on the Korean society, our legal system and practical guides for everyday lives, along with settlement support, including school enrolment, academic background recognition, employment, and medical care – in a more systematic manner.

The touch of warmth from all walks of life

Generous contributions flooded in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express our warmth in heart. Religious organisations and broadcasting stations and other organisations,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public, lined up to donate. Items donated included daily necessities, household goods, hygiene products, clothing, blankets, food, toys, books, and stationery for children.

As more-than-expected donations and donation inquiries poured in, the Ministry of Justice signed a MOU with the Korean Red Cross to ensure quick deliveries of donated items.

In October, Afghan special contributors were relocated to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in Yeosu, Jeollanam-do Province. They will receive social assimilation education until February next year. Afghan special contributors initially entered Korea as short-term visitors with a C-3 visa, Shortly after their arrival they had their visa switched to a F-1 (Visiting & Joining Family) visa, which has restrictions on employment attached. Once they complete four months of social assimilation education, they will be granted a F-2 (Long-term Residency) visa in line with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hich allows employment and relocation to a place they desire.

Afghan special contributors will soon embark on a journey toward a new life in South Korea. We hope the very best of their success at this adopted home and fulfill their dreams.

‘도란도란’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미얀마에서 온 찬찬과의 만남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인이 있다. 집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톼툼이 보고, 한국어나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책이라면 마다하는 법이 없다는 그녀. 모국인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로 유명하다.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한국어부심’을 뽑내는 그녀를 만나 본다.



처음 본 한국드라마, 한국어에 끌리다

2003년 무렵, 미얀마 TV에서 한국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미얀마에서 볼 수 있었던 드라마는 주로 중국드라마와 일본드라마였다. 처음 보는 멋진 배우들과 몰입감 있는 이야기 전개에 당시 학생이던 찬찬은 한국드라마에 금세 빠져들었다. ‘오빠’나 ‘언니’처럼 낯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한국드라마에 빠진 건 그녀뿐이 아니었다. 당시 미얀마에서 한국드라마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 그녀의 부모님도 종종 마을 전기가 끊길 때면 드라마를 보기 위해 건넌마을로 ‘원정’ 시청을 갈 정도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다. 친인척 중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많아 스스로 언어와 관련된 재능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어렵פות이 생각했다. 대학입학시험 결과, 그녀는 미얀마 유명대학의 건축학과로 배정됐다. 당



시 미얀마의 대학 제도는 대입시험 성적에 따라 학교와 학과가 자동 배정되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배정된 학교에 반드시 진학해야 하는 건 아니어서, 그녀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언어 관련 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일단 영어는 제외했다. 너무나 익숙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아, 맞대! 한국.’ 그녀는 순간 한국어를 떠올렸다. 한국에 대한 호감과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 그녀는 미얀마의 한 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언제 한국에 왔을까?

“미얀마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 통역사로 지내던 중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어요. 수상자에게는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혜택이 주어져 2012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녀는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이듬해에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





**너무도 닮은 두 언어,
순우리말 ‘도란도란’이 좋아**

KBS <이웃집 찰스>, MBN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MBC <대한외국인>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찬찬. 그녀는 한국어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해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어를 매우 깊게 공부한 ‘한국어 전문가’로 손꼽힌다. 미얀마에서 온 그녀가 한국어로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이유는 뭘까?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엄마’는 미얀마어로 ‘아메가’이고 ‘내가’는 미얀마어로 ‘나가’입니다. 저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역사의 뿌리가 너무 궁금했기에 한국어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사성은 그녀가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더 굳건해졌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문법 구조가 90% 정도 비슷하며 친족 용어, 호칭 등의 어휘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기본 음성 체계 역시 많이 비슷해 미얀마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도 한국어를 배울 때 애를 먹은 적이 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도란도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배울 때 어려웠어요. 미얀마에서도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지만 이런 단어는 무조건 달달 외워야만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고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오웃오웃’ 짖는다고 표현해요. 또 한국에서는 ‘땀을 ‘뿔뿔’ 흘리지만 미얀마에서는 ‘빠익빠익’ 흘립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 집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두고 즐겨본다는 그녀는 좋아하는 순우리말로 ‘도란도란’을 꼽았다. ‘도란도란’은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나 모양을 뜻하는 말로, 그녀는 이 단어를 볼 때면 미얀마에 계시는 부모님과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날 좋은 저녁이면 부모님과 나란히 평상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좋은 추억이에요. 그때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도란도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미얀마에 가지 못했다. 그 사이 남편을 꼭 닮은 귀여운 남자아이를 낳은 찬찬. 그녀는 하루빨리 미얀마에 계신 부모님에게 아이를 안겨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이자 한국어 선생님,
방송까지 영역 넓히고파**

그녀는 미얀마에서 책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두 종류의 책을 출간했다. 하나는 한국에서 살며 경험하고 느낀 한국 생활기를 담은 책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단어책이다. 2018년부터 ‘Study with Chan Chan’이라는 유튜브를 개설해 미얀마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녀는 25만 명의 구독자들이 한국어를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단어책을 출간했다.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움을 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 같아요. 특히 언어를 가르치는 건 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국사람들에게 미얀마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에서 미얀마어 부교수를 지냈고, 현재

는 유튜브를 통해 미얀마어 수업을 진행한다. 미얀마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많은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줄 안다면 미얀마어를 익히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와 만날 계획이다. 한국어와 미얀마어, 두 개의 언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양국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찬찬. 그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자로서의 목표도 전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좀 더 공부해서 두 언어의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세상에 꼭 알리겠습니다.”

그녀의 의미 있는 행보에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라본다.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을 위한 챌린지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지구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는 만큼, 지구 환경을 되돌리려는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지구 환경 살리기의 대표적 활동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할 것 없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 확산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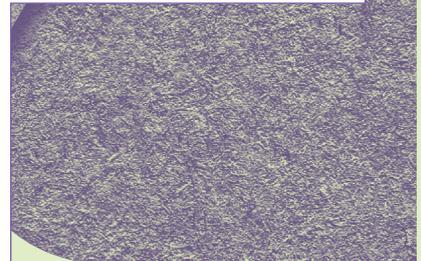
‘제로 웨이스트’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건 미국에 사는 한 여성에 의해서다. 제로 웨이스트는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 종합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정한 정책 목표로, 비 존슨(Bea Johnson)이라는 여성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큰 화제를 낳았다. 이후 그녀는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까지 발표하며 제로 웨이스트를 상징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녀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 자신의 원칙인 ‘5R’을 공개하기도 했다. 5R은 거절하기(Refuse),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 썩히기(Rot)이다.

2900원의 기적

뷰티 업계도 제로 웨이스트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로 웨이스트 기업으로 화장품 브랜드 ‘시타’를 들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시타의 고민은 “시타를 쓰면 지구에도 좋은가요?”라는 한 초등학생의 순수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고민 끝에 시타는 회사의 모든 제품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겠다고 과감하게 결정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패키지로 제작된 기존 제품을 처분 목적으로 파격가 2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른다. 2900원이라는 판매가가 환경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라는 사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제품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 시타는 절치부심한 끝에 이후 완전 퇴비화 기술을 확보, 모든 플라스틱 패키지가 자체 분해 및 퇴비화가 가능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용기내 챌린지

지난해 SNS를 중심으로 ‘용기내 챌린지’가 큰 주목을 받았다. 2020년 4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배우 류준열과 함께 진행하며 알려진 이 챌린지는 대형마트, 식당 등에 갈 때 다회용기나 에코백에 식재료나 음식을 담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자는 캠페인이다. 챌린지 명칭은 용기(勇氣)를 내서 용기(容器)에 음식 등을 포장하자는 뜻을 담았다. 참여 방식은 용기내 챌린지 인증샷을 개인 SNS에 올리고 ‘#용기내 챌린지’, ‘#용기내 캠페인’ 등의 해시태그를 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용기 등 생활쓰레기가 급증하던 때라 더 큰 관심을 받았다.



Zero Waste

쓰레기도 콘텐츠가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유튜브 채널도 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진행하는 ‘도와줘요 쓰레기박사’를 운영한다. 이 방송은 쓰레기에 대한 구독자의 다양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어 인기가 많다. 같은 채널의 ‘플라스틱 방앗간’도 흥미롭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을 활용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개인 유튜브버들도 쓰레기 관련 콘텐츠로 채널을 운영한다. ‘발명! 쓰레기걸 Trash girl’은 쓰레기를 재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고, ‘쓰레기 왕국’이라는 채널은 지구가 일회용 폐기물로 뒤덮인 쓰레기 왕국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구독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동네 친환경 가게는 어디?

우리 동네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가게는 어디가 있을까? 요즘 널리 사용되는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동네 가게를 검색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친환경 가게의 위치와 상호명은 물론 친환경 포장재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해당 가게가 어떤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웃들의 방문 후기도 확인 가능하며, 친환경 가게 지도는 참여형 콘텐츠로 누구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업사이클링을 통한 제로 웨이스트

Upgrade와 Recycling의 합성어로 단순 재활용을 넘어 활용성과 디자인에 신경 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활동이 업사이클링(Up-Cycling)이다. 그런 의미에서 업사이클링은 제로 웨이스트의 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업사이클링 브랜드 중 하나는 프라이탁이다. 1993년부터 업사이클링을 실현한 이곳은 버려진 트럭의 방수천막과 자동차 안전벨트 등을 활용해 가방을 만들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매년 440톤의 방수천막과 약 3만 5000개의 자전거 이너 튜브, 28만 8000개의 자동차 안전벨트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양말 브랜드 ‘솔메이트 삭스’도 유명하다. 이 브랜드의 모든 양말 제품은 짝짝이로 판매되는데, 이유는 양말이 모두 버려진 티셔츠에서 뽑은 실로 만든 100% 수제품이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자들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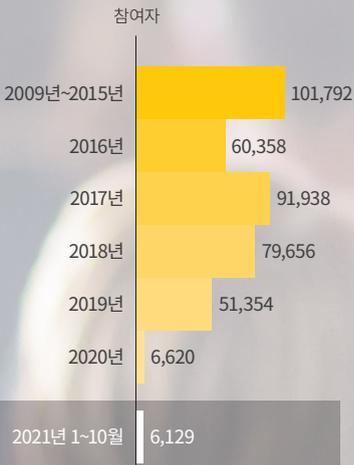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도입 첫해인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이동제한과 집합교육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으나 점차 회복중이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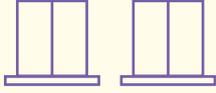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많은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다소 주춤했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교육 참여자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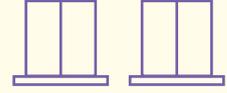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여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로 인해 2011년에 교육 참여자가 16,701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의 감소 추세로 교육 참여자 수가 감소했다. 이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증가하던 교육 참여자 수는 다시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민정책 &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 간 체결한 협정으로 2009년 12월에 개원한 이민정책의 싱크탱크이다. 연구원은 주로 이민정책 연구와 관련 전문가 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커다란 변화의 물결 위에서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내외국인 간의 사회갈등 고조, 인구 데드크로스의 경험, 최근 아프간 사태로 인한 난민 문제의 이슈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남에 따라 연구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고조될 우려가 높아지자 연구원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매우 중요한 정책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언택트 시대 정주형 이주인력의 활용방안>, <코로나19시기 외국인대상 위기관리>, <코로나19시기 외국인주민 민간단체의 역할>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정책> <이주민의 건강과 건강권 제고> <코로나19와 외국인주민 통역>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이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원이 올해 진행한 연구들이다. 이처럼 연구원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민정책이 미래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는 향후 5개년(2023-2028) 간의 국가 이민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자, 학계 관계자 등과 양질의 정보 공유도

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이민정책 연구사업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지만, 국제이주기구(IOM)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해외에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 전문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국내외 이민뉴스 및 정책, 연구 동향을 매주 전달하는 위클리리포트(weekly report) 등 다양한 간행물을 통해 이민정책연구자 및 학계 관계자, 대학원(생)들과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구원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민정책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이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얼마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가 신설됨에 따라 연구원은 앞으로 외국인 통계를 활용한 증거 기반의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민 관련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국민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려면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혁신적 서비스와 철통 경계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지킨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은 외국인관광객과 유학생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다. 그에 따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하루도 늘 바쁘게 돌아간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우리나라 제1항만의 국경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관내 외국인들이 만족스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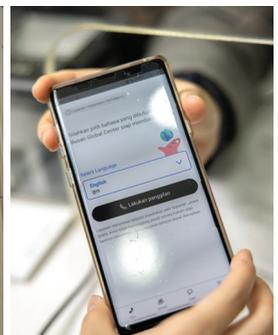
언어 안 통해도 걱정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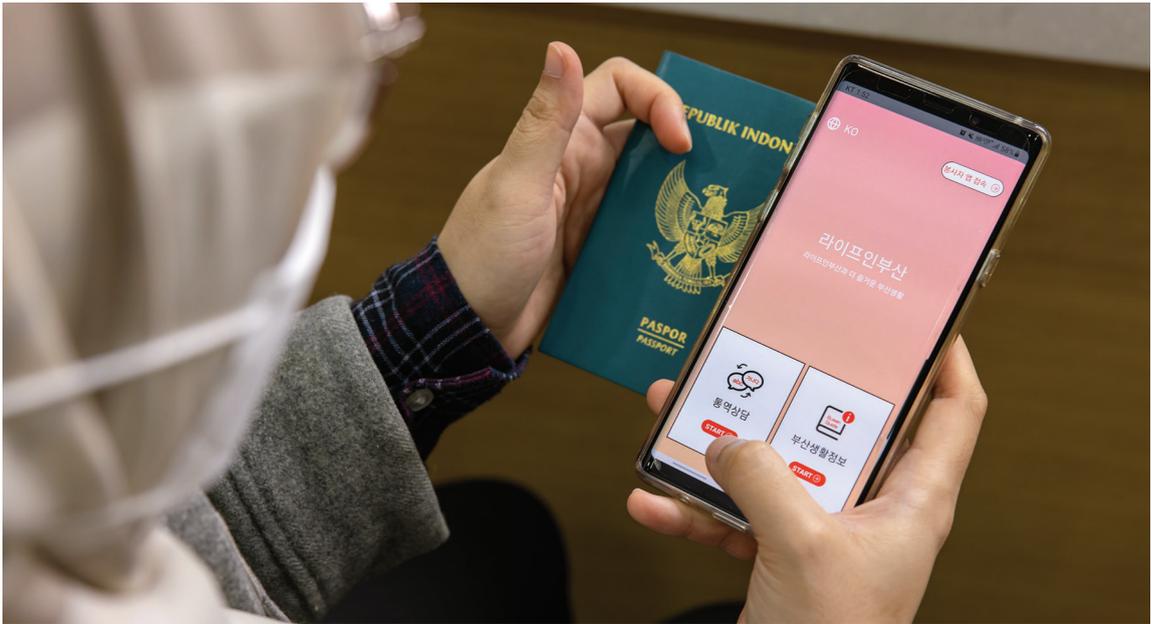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서 온 인탄 씨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청) 종합민원센터(별관)에 방문했다. 한국어가 서툰 인탄 씨이지만, 이곳에서는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부산청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손쉽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상담통역 앱을 이용한 공공기관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통역 앱은 ‘외국인도 편리한 스마트도시 부산’을 표방하며 부산청이 지난 10월부터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등과 함께 출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상담통역 앱에서는 80여 명의 서포터즈가 13개 언어로 공공기관 전화통역, 동행통역, 채팅상담 등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탄 씨도 이날 부산청 방문 전 상담통역 앱을 통해 동행통역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방문 당일 동행 통역인으로 배정된 서포터즈 아실리아 씨의 도움을 받아 민원업무를 무사히 마쳤다. 부산청 이민통합지원팀 허욱 팀장은 “본 상담통역 앱은 한국어가 서툰 민원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

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면서 “상담통역 앱을 이용해본 민원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부산청은 이밖에도 관내 외국인들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일구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라디오 영어방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부산시 출연 비영리재단인 부산영어방송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부산청은 공익 글로벌 FM 라디오 방송인 ‘부산영어방송’을 통해 출입국정책 및 부산청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알리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베트남어에 능통한 출입국직원이 직접 생방송에 출연해 관내 체류하는 베트남인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부산영어방송을 통해 부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이민자 교양 아카데미’를 홍보하여 이민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민자 교양 아카데미는 이민자들과 생활정보 및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블루(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취지





에서 기획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몽골에서 온 김소연 씨는 “온라인 이민자 교양 아카데미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다”라고 전했다. 부산청은 이외에도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도시농부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선박심사에서 출입국사범 조사까지 출입국 업무 전반 수행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출입국의 업무가 출입국 심사에서 체류관리, 난민, 이민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확대됐다. 부산청은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경남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신고, 재입국 허가 같은 각종 체류 허가 업무와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통합 업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출

Interview

“모두가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확립”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종민 청장

145명의 공무원과 37명의 지원인력으로 운영되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3과(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1특수조사대(이민특수조사대)로 조직돼 있고, 산하에 2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다름’보다 ‘같은’에 주목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선진 이민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한편, 테러 혐의 및 밀입국 등 국의 위해자와 서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취업 및 범죄사위반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모두가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입국관리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산하에는 부산 감천항과 다대포항을 담당하는 감천출장소와 경남 김해시와 밀양시를 관할하는 김해출장소가 있다.

또한 부산청은 우리나라 제1항만인 부산항의 항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입출항 선박심사 및 선원·승객의 출입국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크루즈를 심사하는 여객·크루즈팀과 선박의 입출항 및 선원의 승하선 심사를 담당하는 선박팀, 부산신항에서 선박을 심사하는 신항팀으로 세세하게 나뉜다. 광활한 바다에서 멋진 크루즈선을 보며 크루즈선의 선원 및 승객을 심사하는 경험은 부산청 심사과 직원들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업무이다.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항만의 특성상 부산청은 밀입국 및 선원 무단 이탈 검거에도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청의 밀입국 및 선원 무단 이탈 검거율은 2020년 82%로 2019년 40%였던 데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부산청은 올해도 80%대의 검거율을 기대하고 있다. 조사과 이남규 팀장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한 탐문조사를 벌여 밀입국 및 선원 무탈 이탈 검거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허위 외국 인등록증을 유통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끝까지 적발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청은 통상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형법 위반(문서인장죄, 여권법, 밀항단속법) 등 출입국·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전담하는 ‘이민특수조사대’라는 특수 조직도 운영한다. 2015년 서울청에 이어 부산청에도 ‘이민특수조사대’가 신설됐는데 부산을 비롯해 대구, 울산, 경상도와

광주, 전라도, 제주도까지 관장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주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개최 시 안전을 확보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특별조사사항의 이행,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출입국사범과 경합범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2기 부산청 시대를 기대하며

부산청 청사는 본관과 본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별관으로 나뉜다. 본관에서는 주로 행정, 난민, 이민통합, 조사, 사범, 보호, 선박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별관에서는 종합민원센터로서 주로 체류관리, 국적 업무를 담당한다. 1978년도에 지어져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본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별관을 운영 중이지만 민원인의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산청 김종민 청장은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직원

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다 넓고 쾌적한 청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침 부산에서는 원도심과 신항 개장으로 항만의 기능이 약화된 복항을 연계하는 복항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재개발지역 내 매립지에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가 들어설 예정인데 부산청도 다른 기관들과 함께 합동청사에 입주할 계획이다. 김종민 청장은 “국내 제1항만을 관할하고 영남권을 대표하는 출입국 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갖추는 것은 부산청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숙원을 이뤄 더욱 업그레이드된 K-행정 서비스를 펼칠 부산청 제2기 시대의 개막을 기대한다.



법무부, 이민정책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개최

법무부가 지난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출입국기관장회의’에 이어 생산연령인구 감소(‘18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20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 유학생 활용 등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족한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과 난민·외국인 아동 등을 포용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것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 도입을 주장했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민·관·학계 난민정책 자문TF 구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및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

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면서 “우수인재 유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국익에 부합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총 13명)

학계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운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계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동광(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정기선(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손병덕(한국이주민복지회 대표이사)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외국에서 피해야 할 손동작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들이 외국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손동작에서 나라나 문화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엄지 척’ 손동작



주먹을 쥔 채 엄지를 치켜 올리는 ‘엄지 척’ 손동작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뜻하지만 서양에서는 숫자 ‘1’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욕설의 의미로 쓰인다.

‘OK’ 손동작



‘OK’ 손동작은 우리나라에서 ‘알겠다’나 ‘괜찮다’, ‘좋다’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반해 프랑스에서는 ‘0’이나 ‘가치가 없음’을 뜻한다. 또 러시아, 터키, 브라질 등에서는 성적모욕감을 주는 의미로 쓰인다. 미국 일부 극단적 백인우월자들은 이 손동작을 ‘백인 권력’을 뜻하는 제스처로 사용하면서 미국 반명예훼손연맹은 이 손동작을 혐오 상징 목록에 등재했다.

‘V자’ 손동작



검지와 중지로 ‘V’자를 만들 때는 손등의 방향에 신경써야 한다. 보통 ‘V’자 손동작은 Victory(승리)를 의미하지만, 손등이 상대방을 향한 ‘V’자는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욕설로 사용된다.

‘쓰담쓰담’ 손동작



우리는 주로 어린 아이나 아랫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지만 이 행동을 동남아 등의 불교국가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불교 사상에서 머리는 가장 신성한 신체 부위로 여겨져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크로스 핑거’ 손동작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손동작을 기억하자. 검지와 중지를 교차한 크로스 핑거 손동작은 서양에서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제스처로 쓰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욕으로 사용된다.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현 계장님.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동안 여동생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은 무사히 베트남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곽현 계장님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베트남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베트남 여성이 담당 직원인 곽현 계장님의 도움으로 베트남에 무사히 귀국하여 본국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녀의 친언니가 이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칭찬 주인공



화성외국인보호소
곽현 계장

Q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환 업무 간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나 고충을 처리해주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베트남 여성이 이상 증세를 보이던 당시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해당 외국인은 보호실에서 울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호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함께 생활하는 다른 보호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또한 속옷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의 자해행위로 감시실 직원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에 있는 그녀의 친언니와 연락이 닿았고,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시킬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친언니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본부 이민조사과에 동생의 상태를 알리는 등 여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동생과 무사히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Q 일이 잘 해결되고, 감사 편지까지 받았는데 그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보호외국인의 친언니가 감사 편지까지 보내주어 제가 도리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보호소의 모든 직원이 보호외국인들의 빠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출국을 원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보호소에 장기로 머무는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외국인의 고충을 경청하고 문제를 처리해줌으로써 그들이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업무 관련하여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을 하면 할수록 출입국 관련 업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소에 근무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울산중부경찰서 000 경위입니다. 저희가 인계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관리기관 담당자인 차순희 계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 계장님이 저희와 불법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담당해주셨는데, 본인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음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 중에서

칭찬 주인공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차순희 계장

Q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작년 7월부터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 사범과 퇴거팀에서 보호외국인의 퇴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일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A 평소 가장 난처할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항공료 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보호외국인들이 고집을 부리고, 보호동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인 것 같습니다.

Q 민원인을 응대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보호외국인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본인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를 약간 적대적으로 대하며 불만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적대감을 주지 않기 위해 표정이나 말투에 많은 신경을 쓰고 보호외국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보호외국인은 누구인가요?

A 한 보호외국인이 우리 소에 입소할 때부터 본인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며, 이상 행동만 반복하다가 보호소에서 난동을 부리곤 했습니다. 이에 해당 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해 대사관과 여수출입국의 공조로 그를 동두천 병원에 입원시키고 건강상태 체크와 정신치료 등을 거쳐 무사히 퇴거를 집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보호외국인들과 면담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때, 그리고 보호외국인을 아무 문제 없이 출국시키고 사무소로 복귀해 자료정리를 끝내고 나면 보람을 느낍니다.

Q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보호외국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에 힘쓰고 싶습니다.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1 vol.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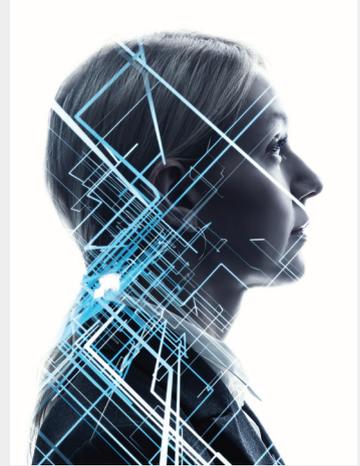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참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 행안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11월에 개최된 해당 박람회는 지난 4년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종합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박람회는 온라인 전시관, 메타버스 전시관 등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는 온라인과 메타버스 전시관에 방문한 국민들의 K-ETA제도에 대한 질문 등에 친절히 설명하고, 실시간 음성 대화나 채팅을 통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K-ETA를 널리 알렸다. K-ETA는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검증 절차를 통해 국경 안전을 확보하고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KISTI와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진행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2회에 걸쳐 진행했다. ▲데이터 과학 기초 ▲빅데이터 분석 개론 및 데이터 활용교육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메타버스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은 실무에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법무부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외국인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신규 창출되는 외국인 빅데이터를 민간부문에 공익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지난 11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회의에 참석한 출입국기관장들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이민정책’과 ‘국제적·인도적 책임을 다하는 이민정책’에 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출입국기관장들은 또한 외국인정책 수행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 농업 분야 적정규모 외국인력 도입, 불법체류 아동 구제, 국력에 맞는 난민 수용 책임분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과 정책과정을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중점추진 정책으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외국인 백신접종, 국민 백신 접종률에 근접
1차 77.6%, 완료 72.2%**



법무부가 지난 11월 16일 기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2차)이 72.2%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국민 백신 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근접한 수치로, 지난 8월 28일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32.3%,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5.7%에 불과했으나, 11월 16일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1.7%,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4.6%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성과는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와 외국인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 UN 대테러실(UNOCT)과 파트너십 강화 “테러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



박범계 장관은 지난 11월 미국 뉴욕 소재 UN본부를 방문해 브룬코프 유엔 대테러실 사무차장을 비롯한 UN 대테러실 관계자들을 만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PC)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브룬코프 사무차장은 테러방지를 위한 한국의 유관기관 간의 진지한 협력관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테러 예방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UN 대테러실 국경보안관리팀이 추진하는 ‘개도국의 국경관리시스템 개선 및 테러업무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테러 예방을 위한 전 세계적 공동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VENT

공존 共存

함께한다는 뜻이기에,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공존> 겨울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소중한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1. 12. 10 ~12. 24

참여 방법

-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의견을 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해
파리바게뜨 교환권
(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1년 12월 2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1. 12. 31.(금)까지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향후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단, 형사범 및 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 -

※ 자진출국자는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20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



Illegal residents who are/will be fully vaccinated in Korea by 31 December 2021 can enjoy fine exemption and a suspension of entry restrictions if they voluntarily leave Korea.

- Exception applies to offenders of criminal law and Covid restrictions. -

※ The rest of voluntary departures should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corresponding to Preliminary Declaration of Voluntary Departure.

This scheme will be **temporarily** effective from 12 October 2021 until the date of further notice.
Please reach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by calling 13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